

제10장 — 보름달이 남긴 손자국

리네는 결정을 내린 뒤부터, 오히려 더 자주 흔들렸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선택지가 많아 흔들린다. 하지만 결정을 내린 뒤의 흔들림은 달랐다.

그것은 선택지의 흔들림이 아니라, **선택한 길이 옳은지**에 대한 흔들림이었다. 여왕은 늘 선택해야 하고, 선택이 옳았는지 확인받지 못한 채 전진해야 한다. 그게 왕좌의 무게라면, 리네는 그 무게를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홀로 버티는 쪽을 택했다.

그리고 그 택함이, 점점 그녀의 숨을 얇게 만들고 있었다.

집무실의 창문 너머로 수로가 보였다.

물은 언제나처럼 흐르고 있었다.

Tranquillum mare fati(잔잔한 운명의 바다)의 상징인 조개 문양은 책상 위 서류의 왁스 봉인에도, 회랑의 기둥에도, 왕좌 뒤의 벽에도 조용히 새겨져 있었다.

조개는 바다의 약속이다. 닫힐 때는 고요하고, 열릴 때는 진주를 품는다. 리네는 늘 그 상징을 좋아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안쪽에 생명을 품는 것. 바다의 왕국 답고, 그녀답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요즘은 조개 문양을 볼 때마다, 어딘가가 조여 왔다.

조개는 달혀서 지키지만,

달은 비취서 파고든다.

lucet luna aeternitatis(빛나는 영원의 달)-달의 왕국의 상징은 보름달이다. 둥글고 완전한 원.

그림자 하나 없이 빛으로 가득 찬 얼굴. 그러나 리네는 안다. 완전한 원은 한 면만 보여줄 뿐이다. 보름달이 아름다운 이유는, 반대편이 어둠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달의 왕국은 그 어둠을 무기로 삼는다. 예지를 말하면서도, 예지가 닿지 않는 틈에서 칼을 쫓는다.

리네는 서류 위에 손가락을 얹었다. 정보는 정리되어 있었고, 지도에는 이미 이동 경로가 표시돼 있었다. ‘예지가 닿지 않는’ 저지대. 안개가 짙고 바닷물이 얇게 스며드는 경계 지점. 그녀는 그곳이라면 달빛의 관측이 흐려질 것이라고 믿었다. 믿고 싶었다.

그러나 믿음은 사실이 아니다.

리네는 입술을 아주 짧게 깨물었다.

그 동작은 여왕답지 않게 소녀 같았다.

그리고 그 소녀 같은 흔들림이 스스로도 낯선 듯, 그녀는 곧바로 표정을 정리했다.

“괜찮아.”

그녀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내가 하면 돼.”

그 말은 다짐이었지만, 동시에 자기암시였다.

암시는 흔들리는 사람이 더 자주 한다.

잠깐, 문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리네는 고개를 들었다.

당신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당신의 기척”이었다.

당신이 회랑을 지나는 발소리는 일정했고, 숨은 얇게 접혀 있었으며, 이상하게도 밤과 낮의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 리네는 그 기척만으로도 당신의 상태를 대략 짐작할 수 있었다. 분노가 가라앉은 사람의 걸음은 무겁지 않다. 오히려 가볍다. 너무 가벼워서, 더 무섭다. 무게가 안쪽으로 몰려 있기 때문이다.

리네는 문을 열지 않았다.

부르지도 않았다.

그저 손을 서류 위에 얹은 채로, 잠깐 숨을 멈추었다.

말할까?

사실을 고할까?

‘다음 임무의 일부를 숨겼다’고, ‘혼자 해결해보려고 한다’고.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당신의 눈빛이 어떻게 변할지 리네는 상상할 수 있었다. 당신은 결코 그녀를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더 깊게 자신을 원망할 것이다. “내가 약해서 공주님이 혼자서…” 같은 식으로. 그리고 그 자기비난은 당신을 더 빨리 망가뜨릴 것이다. 리네는 그걸 견딜 자신이 없었다.

당신이 망가지는 걸 보는 건, 적의 칼보다 더 잔인하다. 그녀는 문고리를 잡는 대신, 손을 더 깊게 깎지 꺾었다. “말하지 마.”

리네는 속으로 말했다.

“아직은.”

말하지 않는 건, 숨기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왕은 때로 진실을 숨긴다. 국민을 위해서라고. 부하를 위해서라고. 왕좌는 그런 권리를 준다. 동시에 그런 죄도 준다.

리네는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다.

여왕의 얼굴로 돌아가기 위해서.

여왕의 목소리로 생각하기 위해서.

“이번엔 내가…”

그녀는 말을 끝까지 잊지 못했다. 숨이 조금 떨렸기 때문이다.

그 떨림이 싫어서, 그녀는 더 단단하게 결심했다.

홀로 해결하자.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조용히 불을 끄자.

리네는 그 결심으로 오늘 하루를 버티기로 했다.

당신의 하루는 반대로, 결심으로 버티는 게 아니었다.

당신은 결심으로 자신을 갈아 넣고 있었다.

임무 실패 이후, 당신은 훈련장을 떠나는 법이 거의 없었다. 공식 훈련 시간이 끝난 뒤에도 남아 있었고, 사람들이 다 돌아간 뒤에도 홀로 남아 움직였다.

바닥을 굴렀다. 무릎이 갈렸다. 손바닥이 터졌다. 옷이 흠과 땀에 젖어 무거워졌고, 천이 피부에 달라붙어 움직일 때마다 상처를 뜯었다.

그런데도 당신은 멈추지 않았다.

교관이 가르쳐 준 “분노를 밑으로 내려라”라는 말은,

당신에게 이상하게도 반대로 적용되고 있었다. 분노는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 그 깊은 곳에서 당신의 몸을 쥐어짜고 있었다.

단원 둘이 훈련장 가장자리에 서서 당신을 보고 있었다.

그들은 가까이 오지 않았다.

말도 걸지 않았다.

그저 보고 있었다.

당신이 칼을 쥐는 손이 흔들리지 않는 걸.

숨이 거칠어져도 리듬이 깨지지 않는 걸.

무릎에서 피가 배어나와 바닥에 점처럼 떨어져도, 그 점을 밟으며 계속 움직이는 걸.

“미친...”

한 단원이 작게 중얼거렸다.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다른 단원이 낮게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두 감정이 섞여 있었다.

공포와, 경외.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단단함을 볼 때 두려워한다. 동시에, 그 단단함을 조금이라도 벌리고 싶어 한다. 그래서 경외한다. 그러나 경외는 오래 가지 않는다. 경외가 오래 가면, 결국 “저건 인간이 아니다”로 변한다.

그 순간이, 그들에게 서서히 오고 있었다.

당신이 휘두른 칼날이 허공을 갈랐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똑, 하는 소리가 났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였다.

당신의 손목이 아니었다.

발목이었다.

바닥을 구르다 착지 각도가 조금 틀어진 탓이었다.

발목이 삐끗하며 체중이 걸렸고, 그 즉시 무게가 뼈를 넘겼다. 통증은 즉각적으로 올라왔을 것이다. 정상이라면 주저앉는다. 숨을 삼키고, 욕을 하고, 누군가를 부른다.

그러나 당신은...
주저앉지 않았다.

잠깐, 아주 잠깐 발끝이 바닥을 더듬었고, 당신은 그 발끝을 다시 땅에 붙였다. 통증을 포함하고, 숨을 쉰고, 중심을 다시 잡았다. 그리고 다음 동작으로 이어갔다. 단원 둘이 동시에 숨을 들이켰다.

“야, 멈춰! 야!”

한 단원이 결국 외쳤다.

당신은 그제야 고개를 돌렸다.

“괜찮아.”

목소리는 낮았다.

“괜찮을 리가 없잖아! 뼈—”

“괜찮아.”

당신은 같은 말을 다시 했다.

말을 바꾸지 않았다.

말이 바뀌면 마음이 흔들리니까.

그 순간, 단원들이 느꼈다.

당신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더 단단해지는 방식으로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걸 보는 건, 어떤 전투보다 무서웠다.

그날 저녁, 마을에서 아주 사소한 사건이 있었다.

시장 골목에서 아이 하나가 어인의 짐을 건드려, 물건이 바닥에 떨어졌다. 유리병이 깨졌고, 소금에 절인 생선이 흙바닥에 쏟아졌다. 어인은 놀랐고, 아이는 겁먹었다. 주변 상인들이 다급히 달려왔다. 누구도 크게 화내지 않았다. 이런 일은 흔하다. 사과하고, 치우고, 다시 정리하면 된다.

하지만 당신은 그 장면을 보자, 발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너무 무겁게 반응했다.

아이의 손목을 잡은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밀친 것도 아니었다. 행동은 조용했다. 그러나 눈빛이 달라졌다. 눈빛이 ‘사소한 사건’을 보지 않았다. 눈빛이 ‘균열’을 봤다. 작은 실수가 큰 비극으로 이어지는 흐름. 무너짐의 첫 조각.

당신은 낮게 말했다.

“손을 치워.”

아이에게 한 말인지, 주변에게 한 말인지 모호했다.

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인은 숨을 삼켰고, 상인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다.

그 눈빛 속에는 잠깐의 이해가 있었다. ‘임무 실패했지’라는 이해. 그러나 그 이해는 곧 두려움으로 변했다. 당신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없었지만, 그 부재가 더 무거웠다. 마치 분노가 이미 지나가고, 이제는 ‘결론’만 남은 사람처럼. 한 단원이 뒤에서 당신의 어깨를 잡으려 했다가, 손을 멈췄다.

잡았다가 놓는 동작.

그 망설임.

그 망설임이 그들의 결론이었다.

그날 이후, 단원들은 당신과 조금 더 멀어졌다.

말을 걸 때 한 박자 더 늦었고,

웃음이 닿기 전에 끊겼고,

같이 서 있어도 서로의 그림자가 겹치지 않게 섰다.

당신은 그 변화를 느꼈다.

하지만 붙잡지 않았다.

붙잡으면, 더 부끄러워질 것 같았다.

새벽, 당신은 홀로 순찰을 돌았다.

발목은 여전히 아팠지만, 아픔은 당신을 멈추게 하지 못했다. 오히려 당신은 아픔을 확인하듯 걸었다. 아직 살아 있다는 증거처럼.

바닥 아래의 물소리가 낮게 울리고, 수로 위에는 얇은 안개가 깔렸다. 그 안개는 왕궁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었다. 경계가 흐려지는 시간대는 늘 위험하다. 수로 쪽에서 물결이 아주 작은 파문을 만들었다. 당신은 멈춰 섰다. 수면 아래, 몇 개의 그림자가 있었다.

인어들이었다. 그들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다. 대신 물 밑에서, 당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은 인간의 시선과 다르다. 물을 통해 굴절되어 오는 눈빛은 직접적이지 않지만, 더 깊다. 숨길 수 없다. 잠시 후, 노래가 들렸다. 이번엔 더 또렷했다. 더 직접적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말’로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았다. 그들은 알리되, 끝까지 말하지 못한다는 듯-운율로 경고했다.

“조개는 달혀도… 깨지지 않으나,
“보름달은 웃으며… 칼을 숨기네.”
“너의 발밑에… 얇은 얼음이 있고,
“너의 등 뒤에… 둥근 눈이 떠 있네.”
“바다가 말해도… 왕좌는 듣지 못하니,
“피가 흐르기 전엔… 아무도 믿지 않네.”

노래가 끝났을 때, 인어들은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다.

당신만 남았다.

안개만 남았다.

그리고 노래의 의미만 남았다.

조개. 보름달.

바다의 왕국과 달의 왕국.

당신은 손을 쥐었다.

잡지 않고, 쥐었다.

그 노래는 경고였다.

그리고 당신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경고는 이미 늦었을 수도 있다는 걸.

그날 아침, 왕궁이 소란스러워졌다.

처음은 집무실이였다.

리네의 집무실 문턱, 조개 문양이 새겨진 바닥 돌 위에
아주 미세한 흠집이 발견되었다.

흙집은 문양을 훼손하지 않았지만, 문양 “옆”에 있었다.
누군가 일부러 훼손을 피한 듯한 자리. 그리고 흙집은
단순한 굽힘이 아니라, 얇게 새겨진 원이었다.

완전한 원.

보름달.

조개의 옆에, 보름달이 새겨져 있었다.

“이건...”

기록관이 짧게 말했다.

그는 손끝으로 원을 살피며 단어만 내뱉었다.

“표식.”

“침투.”

“경고.”

리네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얼굴은 단단했지만, 눈동자는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왕좌.”

누군가가 말했다.

왕좌 옆, 조개 문양이 있는 기둥에 또 하나의 보름달이
있었다. 이번에는 흙집이 아니라, 아주 얇은 금속 가루
가 박힌 듯 반짝이는 원.

빛을 받으면 보름달이 떠오르는 듯한 표식. 누군가가
왕좌 곁을 ‘건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선
명한 시위.

리네는 그 표식을 바라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은 여왕의 침묵이었지만, 동시에 사람의 침묵이
었다.
그리고 마지막은—침실이였다.
리네의 침실 문이 열렸을 때, 공기는 차가웠다. 창문은
달혀 있었고, 불도 꺼져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달빛이
들어온 것처럼 느껴졌다.

침대 다리 아래, 조개 문양이 새겨져 있어야 할 자리에
—보름달 문양이 얇게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침대 위, 베개 옆에.
보름달 모양의 장신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완벽한 원.
보라빛이 아주 열게 도는 은색.
손에 쥐면 차갑고, 그러나 오래 쥐고 있으면 이상하게
따뜻해질 것 같은 금속.
선물.

하지만 이건 선물이 아니라, 메시지였다.
우리는 네 침대 옆까지 왔다.
우리는 원하면 언제든지 끝낼 수 있다.
그 메시지가 너무 정확해서, 리네의 숨이 아주 잠깐 멎
었다.
그 순간, 당신이 들어왔다.

당신은 그 장신구를 보는 순간, 피가 차갑게 식는 걸 느꼈다.

분노가 올라왔다.표정이 사라졌다.

구역질과 죄책감이 함께 올라왔다.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더 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의 손이 떨릴 뻔했다.

하지만 떨리지 않았다.

떨리지 않아서 더 무서웠다.

보호 본능이 목을 조였다.

분노가 눈꺼풀 아래로 차올랐다.

그리고 당신은, 아주 낮게 말했다.

“...죽이겠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당신도 몰랐다.

달의 왕국에게인지,

표식을 남긴 손에게인지,

아니면—이 상황을 만든 자기 자신에게인지.

리네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여왕의 얼굴이었다.

단호했고, 흔들리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그 단호함 아래에서, 아주 작은 소녀의 흔들림이 보였다.

침대 다리의 표식이 아니라,
베개 옆의 ‘선물’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그녀를 더 흔들고 있었다.
리네는 짧게 말했다.
“건드리지 마.”

그 말은 장신구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당신에게 하는 말이었다. 지금 당신이 분노를 “잡으려” 하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당신은 손을 더 강하게 쥐었다.
잡지 마. 쥐어.
그 대사가 다시 떠올랐다.

당신은 이를 악물고 분노를 밑으로 내렸다.
그러나 그 밑은 이미, 균열로 가득했다.
리네는 장신구를 집어 들지 않았다.
대신 하인에게 가져가라고 명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여왕처럼 말했다.
“당분간… 내 침실 경계를 강화한다.”
그 말은 명령이었다.

하지만 그 명령이 너무 늦었다는 걸, 당신도 리네도 알고 있었다.

달은 이미 안쪽까지 들어왔다.

조개가 달혀 있는 사이에, 보름달이 웃으며 침투했다.

그리고 당신은 확신했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임무가 아니다.

이제부터는—리네의 목숨이 걸린 전쟁이다.

당신의 분노와 죄책감과 보호 본능이 하나로 뭉쳤다.

당신은 조용히, 그러나 깊게 결심했다.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늦지 않는다.

이번에는…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하지만 그 결심이 강해질수록,

당신은 더 위험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리네는—

당신을 지키기 위해 숨기려 했던 정보들이,

이제는 당신을 더 망가뜨리는 방향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걸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다.

보름달은 침대 옆에 남겨져 있었다.

조개는 여전히 왕궁 곳곳에 새겨져 있었다.

두 상징이 같은 공간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경고는 충분했다.

왕궁의 평온은 금이 갔다.

그리고 그 금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한명의 소녀이자 여왕은 무너지고 있었으며,

한명의 소년이자 기사는 깨져가고 있었다.

두 개의 존재가 무너지고 깨지며 서로에게서

멀어지는 동안,

달은 조용히 다가와 그들의 모습을 비추며

미래를 예지한다